

오늘은 2020년 10월 두번째 주일입니다.
2020년 10월 11일 언약교회 이모조모입니다.

- 1)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 2) 교회에 등록하기 원하시거나 혹은 좀 더 자세한 안내받기 원하시는 분은 목회자나 혹은 안내위원들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3)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께서는 조금 번거로우실수도 있겠지만, '방문자카드'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예배시간에 갓난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부득불 아이들이 조금씩 소란스럽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처음 예배드리러 오시는 분들께서는 이점이 익숙치 않으실 줄 압니다. 하지만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저희 교회의 마음을 이해해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 예배드리러 오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어색하고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가급적 앞으로 나와서 자리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쪽이 뒤쪽보다는 약간이나마 좀 더 조용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공지입니다>

- 1.주일 오전예배는 특별한 공지가 없는한 계속 드립니다.
- 2.다만, 열이나 기침등 증상이 있으신 성도분들은 교회에 연락해 주시고, 가정에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 3.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마음에 염려가 되시는 분은, 가정에서 예배드리셔도 됩니다.
- 5.예배드리러 오시는 성도분들은, 예배당에 들어오시기 전에 발열체크, 증상유무확인, 손세정제로 손씻기, 개인마스크 착용 확인등을 하고 있으니 협조해 주시고, 예배당에서는 가족들은 함께 앉으시고, 가족 아닌 분들과는 의자 하나를 비워두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 6.죄송스럽지만, 앞으로 당분간, 저희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시려는 다른 교회 성도분들은 함께 예배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우리 교회 성도분들만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마다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타교회 성도분들 예배 가능한지 공지하겠습니다. 혹시 꼭 예배드리러 오실 분은 미리 이-메일로 연락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pastorcho@hanmail.net)

1. 오늘도 지난주일과 마찬가지로 주일예배를 두 번 나누어 드립니다.

(1)오전 11시 예배

(2)오후 2시 예배

주일학교 자녀가 없는 가정은 가급적 (1)<오전 11시> 예배에 참석하시고,
주일학교 자녀가 있는 가정은 (2)<오후 2시>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각자 상황에 맞게 예배를 선택하셔서 참석하시면 됩니다.

2. <10월>은 <개인기도>하는 달입니다.

개인별로 30분, 45분, 혹은 1시간, 기도하는 시간분량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금요일은 7시30분에 시작해서 8시30분에 마치는 것으로 시간을 고정하겠습니다.

개인기도 시간을 가지실 분은, 목사님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아침예배 참석 이후

(2)수요일 저녁7시30분, 금요일 저녁7시30분,

(3)혹은 형편에 맞는 요일, 시간을 정해서 교회에 나와 개인기도 시간을 가집시다.

3. 세례받기 원하시는 성도 분은 목사님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4. 다음 주일(18일) 예배시간등에 대해서는, 거리두기와 관련된 정부 지침이 나오는대로,
결정해서 주말쯤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오전11시 예배만 드릴 수도 있고, 혹은 지금처럼 두 번 예배드릴 수도 있습니다.

5. 올해는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일(18일)부터 낙주 동안 성경학교 분반공부 및 간략한 활동을 하려 합니다.

주일 오후 주일학교 모임 시간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6. 김소민 아가(김수형-민주) 가정에서 첫 생일 감사 떡을 준비했습니다.

7. 교회 계좌로 직접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206 001 04 148 682 언약교회

우리은행 1005-901-708982 언약교회

신한은행 100-032-008667 언약교회

농협 355-0070-8191-13 (예금주/언약교회)

<교육관 헌금> 우리은행 1005-202-531785 (예금주/언약교회)

이번 한주간 동안도 다들 강건하고 평안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샬롬~